

보도시점 (전매체) 5. 3.(수) 14:00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강력한 한 조(원팀)로 지역주력산업 육성

- 지역 혁신주체가 ‘하나로 강력하게’ 한 조(원팀)가 되어 울산시 주력산업(미래차) 육성을 위한 협업방안 논의
-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과 기업 등 20개 기관 맞손
 - 정부·지자체 정책 공유 및 기업의 목소리 청취후 반영 약속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5월 3일(수)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주력산업인 미래차 관련 지역혁신기관과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계망(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혁신 연계망(네트워크) 간담회 개요 >

- 일시 : 5.3(수), 14:00 ~ 16:00
-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대회의실(울산 중구 중가로 15)
- 참석 : 중소기업부 장관, 울산광역시장, 국회의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울산대, UNIST,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2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정책발표 :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중소벤처기업부), 울산시 미래차 육성전략(울산시), 지역혁신기관 한 조(원팀) 지원방안(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책토론 :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울산의 미래차 활성화 방안 토론 및 기업애로 청취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의원 및 지역혁신 지원기관과 대학 8곳, 지역선도기업 6곳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영 장관은 간담회의 목적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 기업이 ‘하나로 강력하게’ 한 조(원팀)가 되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미래차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울산시의 육성전략,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한 조(원팀) 지원방안’ 등 3건의 정책 발표에 이어 참석 기관·기업의 정책토론과 협력방안, 애로·건의사항 등이 이어졌다.

‘울산지역 혁신연계망(네트워크)’에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대학, 연구기관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향후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1:1 상담(컨설팅)과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플랜 설계, 신제품·신기술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미래차 기술전환 및 공용부품 고도화 등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생산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원천기술에 대한 지도·자문, 선행기술 조사와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설도입 등을 위한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자금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R&D) 행정절차의 간소화,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예산 증액 등 10여건의 정책 개선 요청도 있었는데, 이영 장관은 건의된 사항에 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로·규제의 해소와 함께 미래차 육성 예산 확대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울산 동구의 대송농수산물시장과 중구의 태화종합시장을 방문,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월 동행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장보기와 함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5월 동행축제’에 전통시장은 5.9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령 (044-204-7580)
		담당자	사무관	유기석 (044-204-7472)
		책임자	과 장	이성룡 (052-210-0002)
		담당자	사무관	나경우 (052-210-0003)

